



I&S  
INTEGRATION & SOLUTION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약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 그리스도의 몸

☉ 손봉호 (대표주간)

얼마 전 어느 교회 교역자의 도덕적 잘못을 지적하다 그 교회 권사 한 분의 항의를 받았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교회 일에 간섭하느냐?” 하고 물었다. 말이 되는 항의인 것 같다. 남의 집 집안일이나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주제넘은 것이다. 나는 “그 사건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나도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 대답했다. 별로 설득을 당하는 것 같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친다(엡 1:22-23, 롬 12:3-5, 고전 12:12-26).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셨고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몸이 감당했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은 천주교나 개신교 신학에서 의견 차이나 논란이 없다. 개신교나 천주교가 다 같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구절이 있는데 공교회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보편교회를 뜻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개 교회를 초월하는 영적 공동체다. 원칙적으로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지역의 개 교회는 모두 그 공교회의 지체들이다. 그러므로 그 권사는 나에게 ‘남의 교회’에 간섭한다 할 수가 없다. 그 ‘교회’ 교인들과 나는 다 같이 보편적인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교회의 교인들이다. 물론 개 교회의 예배당은 어떻게 지어야 하고 찬양대는 어떤 찬송을 불러야 하는가 같은 것에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지만 성경이 교회와 성도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요구하는 도덕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그 권사는 내가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수 있으나 ‘남의 교회’ 일에 간섭한다고 항의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권사가 그런 항의를 한 것은 한국 교회가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보편교회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존중하지도 않는 것이다. ‘주님의 몸 된 교회’란 말은 거의 입버릇처럼 되어 있지만 거의 예외 없이 자신들이 속한 개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개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의 본분에 충실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경적으로 잘 감당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의 비판



도전서 12장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에베소서 2:21-22은 건물에다 비유한다. 몸과 건물의 공통점은 모든 부분이 상호 의존적이란 것이다. 심장이 없으면 위가 기능을 할 수 없고, 위가 없으면 심장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다. 건물도 그렇다. 기둥이 없으면 지붕이 제자리에 있을 수 없고, 지붕이 없으면 기둥이 기둥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래 서 있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심장은 중요하고 위는 그보다 덜 중요하다 할 수 없고, 지붕은 기둥보다 덜 중요하다 할 수 없다. 그 어느 것도 다른 것 없이 기능할 수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모든 지체가 갖추어져야 몸이 생존할 수 있고 모든 지체가 제대로 건강하게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몸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전체가 하나가 되어 머리인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을 '남의 교회 간섭'이라 할 정도로 개 교회 하나 하나를 그리스도의 몸 혹은 사도신경이 말하는 '거룩한 공교회'라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한 분인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는 하나뿐이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전 12:12)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엡 4:4)

성경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특히 강조하는 것은 교회의 연합이다. 그 연합은 모래알이 모여 무더기가 된 것 같은 기계적(mechanic)인 집합이 아니라 동물의 몸이나 건물처럼 유기적(organic)인 조직이다. 고린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과 개 교단, 개 교회들은 비록 물리적으로나 조직으로 하나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것을 주장하는 이단이면 몰라도 전통적인 정통교리를 신조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단 및 개 교회들이라면 적어도 한 머리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몸에 속해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유대감이라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다. 산산조각으로 분리되어 서로 경쟁하며 서로 싸우고 있다. 눈과 귀가 따로 놓고 손과 발이 서로 싸우는 형국이다. 특히 한국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우상'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한국 기독교계 전체는 고사하고 개 교회 차원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한몸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만큼 무시되는 것도 없지 않나 한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 Contents

WORLDVIEW · SEPTEMBER · 2014



## COVER STORY

06 커버스토리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_송인규

## SPECIAL

- 20 기획칼럼 한국 교회와 직분자: 직분제도와 역할
- 24 기획칼럼 급변하는 직업 세계와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
- 28 기획칼럼 교회의 성(性), 잠금 해제?

## COLUMN

- 02 대표주간 그리스도의 몸\_손봉호
- 34 배낭 메고 떠나는 세계관 운동 Institute for Faith and Learning ([www.baylor.edu/ifl](http://www.baylor.edu/ifl))\_최용준
- 36 공감의 하나님, 공감의 경제학 의로우신 하나님, 불통(不通)의 경제\_김태항

## CULTURE

- 44 불면레시피 세계관 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과 함께
- 50 유머 돈이 제일\_손봉호



표지인물  
송인규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BOOK REVIEW

40 서평 앨빈 플랜팅가 『신·자유·악』 이경직

## NEWS

51 사무국 뉴스

※ 〈월드뷰〉는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       |   |
|-------|---|
| 대표주관  | 손봉호   |
| 발행인   | 김승욱   |
| 편집인   | 신효영   |
| 편집위원  | 김지원, 권태경, 박영주, 백승현, 송태현, 양성만, 이상무, 이우성, 장수영, 전요섭, 조영길 |
| 자문위원  | 신국원, 이상정, 조성표, 최현일                                    |
| 교정/교열 | 김선경   |
| 사진    | 신효영   |
| 기자    | 김소라   |
| 디자인   | 황정희   |
| 제작    |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
| 인쇄    | 완산정판사   |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   |
|--------|---|
| 전화     | 02-754-8004   |
| 팩스     | 0303-0272-4967  |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가길 5<br>(한강르네상스빌 A동 102호)                                    |
| 홈페이지   | <a href="http://www.worldview.or.kr">www.worldview.or.kr</a>              |
| 페이스북   | <a href="https://www.facebook.com/cworldview">facebook.com/cworldview</a> |
| 블로그    | <a href="http://cworldview.blog.me">http://cworldview.blog.me</a>         |
| 모바일매거진 | <a href="http://m.worldview.or.kr">m.worldview.or.kr</a>                  |

#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인터뷰어 **김승욱** (발행인, 중앙대 교수)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인  
송인규 합동신학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 30일에 은퇴식을 가졌다.  
본보 발행인 김승욱 교수가 그를 만났다.



**김승욱** :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지난 호에서는 기독교 세계관학술동역회의 김의원 부이사장님께서 은퇴하셨는데, 이번 호에서는 송인규 이사님을 만나 뵙습니다. 한국 세계관 운동의 1세대들이 이제 강단에서 은퇴하시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에는 언제 부임하셨는지요? 신학을 공부하시고, 합신에 오시기까지 일들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송인규** : 1974년에 건국대 축산학과에서 농학사를, 1980년에 총신대학교에서 M.Div를, 1984년부터 칼빈신학교에서 M.A. 및 Th.M. 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이후 1987년에서 1996년까지 시라큐스대학에서 M.A. 와 Ph.D.를 취득했습니다. 신학 기본 과정은 총신에서 이수하였지만, 저를 가르치던 분들이 합신 쪽에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연이 닿아 1996년 8월부터 지난 2014년 8월까지 18년간 합신대학원대학교에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욱** :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도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오래 전 『죄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라는 소책자를 통해 이원론에 빠져서 영혼구원에만 전념하는 복음주의에 경종을 주셨고, 기독교학문연구회(기학연) 시절부터 세계관 운동에 앞장서셨습니다. 여러 기독교 학회에서 하신 기독교 학문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 강연과 시리즈 강의 등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세계관 운동에 힘써 오셨는데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송인규** : 세계관 운동의 시작은 80년도 초 웨슬리(Wesley Wentworth)의 소개로 만난 윌리엄 쇼어(William Hamilton Shaw)와 함께 IVF 사무실에서 제임스 사이어(James W. Sire)의 *The Universe Next Door*(『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현수 역, IVP, 1995)를 공부하면서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박사과정으로 조선법제사를 연구하던 윌리엄 쇼어(그는 한국 감리교 선교사의 3대째 후손이었다고 함)와 몇몇 대학원생들은 사이어의 책을 한 챕터씩 번역하면서 그 내용을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IVF 총무였던 저는 바쁜 일이 많아 그 그룹에 합세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세계관 운동이 활발해지던 1983년부터 1996년까지 계속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세계관 운동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1982년 IVF 학사회보에 4번에 걸쳐 연재했던 『죄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가 책으로 출판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저를 세계관 운동과 연관 짓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흥왕기라고 할 수 있는 1980년대 후반~90년대 초를 지나 96년도에 귀국해 보니 두 가지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열성을 보이는 이들이었습니다. 기독교 학문 운동을 전개하던 기학연이 대표적이었고, 기독교 대학을 이상적으로 운영하려는 교육자들(한동대가 대표적 예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너무 사변적이라느니,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해도 바뀐 것이 없다느니 하는 것이 가장 흔한 불평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반적 입장이 2002년 <복음과 상황>의 지면을 통해 표면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전히 많은 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경험으로 보자면 요즘은 청년부나 대학부뿐 아니라 일반 교인들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개념이 옛날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고, 또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깊이 침투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IVP에서는 전부터 계획해 온바 『죄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다』의 개정판 발간을 서둘렀습니다. 그때 제가 쓴 책이 2008년 출간된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입니다. 원래 제가 정한 제목은 『성경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였습니다. 이 책에서 많은 성경 인용과 해설을 시도했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 세계관이 생각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 “철학적·이론적 형식을 취해야만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김승욱 :** 말씀하신 『새로 쓴 기독교, 세계, 관』도 그렇지만,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평신도 신학입문』(e-book)이나 『정말 쉽고 재미있는 평신도 신학 1,2』 등도 결국 세계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란 결국 평신도를 위한 신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송인규 :** 우선 저는 기독교 세계관과 평신도 신학 사이에 크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평신도 신학이라고 하면, 목회자 계층에 비해 열등한 신분인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알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신도 신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두 가지 - (1) 평신도도 신분에 있어서는 목회자와 동등하다는 만인제사장적 위상을 밝히는 일, (2) 평신도들에게는 목회자가 이루어 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사명” 수행이 책임으로 주어졌음을 깨우치는 일 -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가 기독교 세계관의 내용과 일부 겹칩니다. 어떻게 겹치느냐고요? 기독교 세계관은 자연, 인간, 문화, 사회를 포함한 모든 피조계를 창조·타락·구속의 시각에서 조망하고 살아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네 범주 가운데 한 분야가 사회이고, 이 “사회”는 평신도 신학에서 다루는 “세상살이”와 그대로 일치합니다.

사실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대부분의 책들이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쏟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세상살이”가 너무 넓고 다소 모호한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삶인데, 이것이 세계관 관련 도서에는 자세히 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삶을 다룰 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명칭보다 오히려 “평신도 신학”이라는 어구를 활용했습니다.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한, 곧 세상살이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살핀 내용이지요.





**김승욱** : 저희가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세계관 운동이 너무 지성주의로 흘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바울서신에도 전반부는 신학적인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에 적용이 나오듯이 이 세상에서 각 전문 영역, 직장이든 가정이든 삶의 영역을 성경적으로 조명하려면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지성운동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인규** : 여기에 대해서는 그저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주의로 흐른다는 비판에는 세 가지 정도의 타당한 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째, 비록 크리스천 지성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부지중에 자신들을 기독교 세계관의 전문가로 기독교 세계관을 자

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특별히 한국 상황에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거나 논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자랑하기 때문인듯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앞의 이유들과 연관되는데,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해서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논쟁·공박을 주고받는 걸 사람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논쟁이 100%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한 비판에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선은 개념과 주장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



독교 세계관뿐 아니라 기독교 윤리, 영성, 심지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 주장, 설명은 자연히 이론적 규명 행위 및 지적 활동과 연관이 됩니다. 가만히 느껴 보라고 하거나 의지를 발동함으로써만은 개념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적 작업은 모든 사안에서 마찬가지인데, 유독 기독교 세계관만이 잘못된 것처럼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들 대부분이 서양 저자에 의해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저술은 기질 및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들로서는 이해하기 쉽게 썼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칼빈의 『기독교강요』는 그 당시 평균 수준의 사람들을 경건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이 읽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서양과 우리는 종교에 있어 이성의 기능에 대한 이해와 강조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머니즘 문화가 주요 바탕이기 때문에 종교에 있어서 지적 기능이나 활동을 거의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저 경건 서적인 것이 우리에게서는 어려운 공부거리로 둔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지성적인 기능이 강조된 것인데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를 받았던 겁니다.

셋째, 어떤 분야는 그야말로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것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학문과 신앙의 양립성 문제가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은 학문의 내용과 신학을 함께 다뤄야 하는데, 이론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요. 이런 양상조차 지성주의라고 비판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서 열거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지성주의라는 비판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세를  
지니는 것과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쉽게  
설명하는 일이야말로 세계관 운동이  
지성주의적이라는 비판과 오해를  
잡재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는 기독교 지성인들이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인이 자량이 아닌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봉호 교수님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세우지 않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으셨습니다. 어쨌든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인을 신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무엇을 하면 교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용어를 늘어놓기보다 가능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세를 지니는 것과 상대방이 알아듣게끔 쉽게 설명하는 일이야말로 세계관 운동이 지성주의적이라는 비판과 오해를 잡재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승욱** : 공감합니다. 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포스트모더니즘 하에서는 감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러한 문화적 조류의 영향으로 기독교도 영성이나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문화 속에 샤머니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요소들도 남아 있어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러한 문화적 흐름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송인규** :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생겼다고 볼 수 있지요. 모더니즘이 강조하였던 이성과 과학적 사고의 우선성을 포스트모더니즘은 전부 부인하며 뭐든지 이성과 반대되는 건 다 좋다고 보는 식입니다. 이성에 대한 반대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 이성과 신비, 이성과 계시,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반동은 일차적으로 서양의 사상사에서 발생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반동이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서양과는 다른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우선 서양의 모더니즘은 그 형성과 발전에 있어 적어도 200~300년을 거쳤습니다. 개인주의도 모더니즘의 한 갈래로 본다면 존 로크(John Locke)의 존재론적 개인주의가 300년을 지속하고 난 이후 반동이 일어났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서양과 같은 모더니즘의 시대가 없었고, 것처럼 철저하고 편만하게 모더니즘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반동 조치가 서양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식과 문화에는 과거부터 잔재해 있던 샤머니즘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몽골부터 시베리아 등,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승욱** : 카리브해의 아이티 등도 기독교인이 거의 100%지만, 거기도 샤머니즘 요소가 매우 많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샤머니즘 영향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송인규** : 그렇죠. 전부 토속 신앙과 섞여서 그렇습니다. 샤머니즘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어느 지역이든지 기독교가 샤머니즘과 만나면 매우 혼합주의적인 성격의 기독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신앙에 있어 지성의 역할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샤머니즘에는 경전이 없어 지적 전통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속적 신앙이 강한 문화 토양에서 자란 우리는 합리성, 객관성, 효율성, 정밀성 등이 매우 약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지에 포스트모더니즘 식의 열광, 감정 위주의 신비주의가 들어온다면 악이 더 가세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에는 포스트모던과 관련된 관념이나 개념이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포스트모더니즘을 너무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모든 문화적 현상을 싸잡아서 무조건 포스트모던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에게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균형입니다. 만일 내가 너무 합리성에만 치우쳐 있다면 감성과 종교적 정서(조나단 에드워즈가 설명한 대로)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각 개인은 자기를 살펴서 균형을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동체적 수준에서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대학부는 어떤가, 청년부는 어떤가, 기학연은 어떤가, 교수들은 어떤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 어떤 식의 균형이 필요한지 따져 보고 그에 맞춰 가야겠지요. 일반적으로 신학교 교수들은 감정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약할 수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처음 분석철학 공부를 시작할 때 너무 지적으로만 치우쳐서 신앙이 강박해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QT 본문을 전부 시편으로 바꿔 버렸어요. 시편에는 감정 표현이 빈번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아 신앙의 균형을 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 전체의 수준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모더니즘의 특징 일부가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합리성, 객관성, 효율성, 정밀성 등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가 일부 모더니즘의 특징을 오히려 미덕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양 사람들처럼 극단으로 흐르든지 도를 지나치자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김승욱:** 한국 교회에는 모더니즘의 특징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모더니즘이 서양의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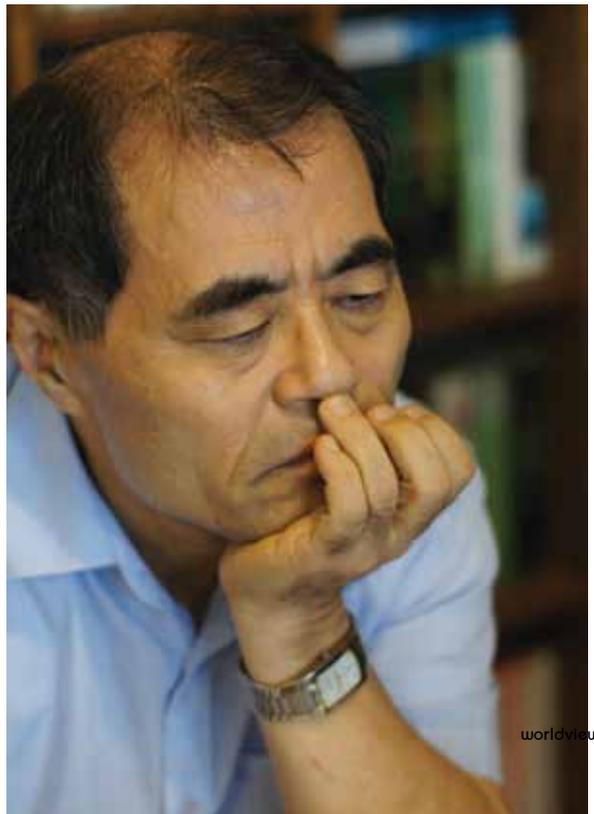
**송인규:** 서양에서는 그런 특색이 극단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후에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양의 그런 역사를 운명론적으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에서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스콜라주의(Protestant scholasticism)가 발흥한 사실을 주목하는데, 이것은 신학의 내용을 좀 더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지적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에는 다수의 학자들이 칼빈 이후의 신학자들이 칼빈을 변질시켰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리처드 멀러(Richard Muller) 같은 학자는 칼빈 이후의 학자들이 근본적으로는 칼빈과 같은 정신을 공유하되, 단지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론적 정교화의 방도를 채택했을 뿐 연속성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기독교 신학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극단적 방식으로 흐르면서 신학적 자유주의를 배태하는 쪽으로 기울고 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사안이든 반대가 지나쳐서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미리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을 강조할 때 선을 그어 반대편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합리성과 효율성, 또 정밀성 등을 강조하지만, 그런 것들이 성경적 기독교의 울타리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는 늘 성경의 권위나 무오성 등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머니즘적인 요소를 제거하면서도 서양과 같은 지나친 합리주의의 탓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승욱:** 세계관 운동이 이원론을 극복하자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좀 극복이 되었다고 보시지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렇다고 보시지요?

**송인규:** 이원론의 극복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국교회가 나아진 점은 두 가지 면에서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원론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좀 더 편만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둘째는 초등학교 과목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기독교영연구원(기경원) 등 교육 분야와 몇몇 특정 분야에서 상당히 노력하여 이원론을 극복해 가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열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피조계를 향시 그리스도의 주 되심(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에 비추어 조망하는 것이 좋은 의미로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 “정신적 습관”(mental habit)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까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性)이든 교육이든 문화든, 창조·타락·구속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는 일이 정신적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연관시켜야 할 분야/주제/사안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걸 따라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이원론이 득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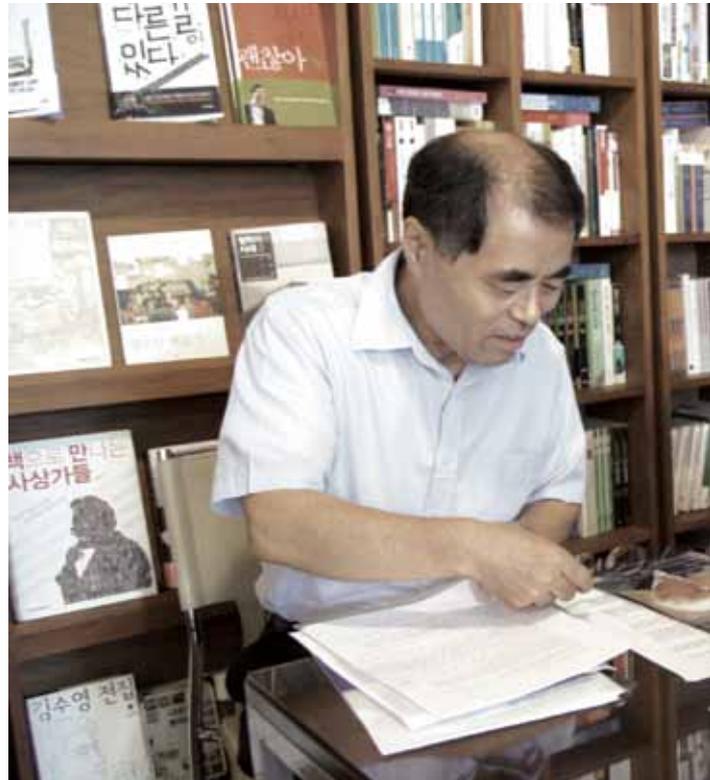


니다. 곧 출간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저는 개그와 기독교 세계관을 연관시켜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에도 살펴보아야 할 주제나 사안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지금 대중문화만 해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런 모든 사안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밝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그 영역에서 세속적이거나 비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영역이 워낙 많으니 이원론의 세력이 여러 곳에서 척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도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 세속적 세계관/가치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원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도 그것이 결국 이물질처럼 마음에 떠다니기만 하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자녀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벌 위주의 세상에 살고 있고, 부모의 위신이나 체면을 중시할 뿐 아니라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여기는 풍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문화의 토양 속에 교묘히 그리고 깊숙이 뿌리내린 세속적 세계관과 가치관들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면서도 실생활에서의 변화가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것이 삶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모범이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이 그 삶 가운데 모범으로 나타날 때, 자녀들도 진리를 인정하고 배우게 되는 법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데 실제 삶에서는 외식적으로 행하거나 자연스럽게 삶으로 배어나오지 않으면, 교우들도 이원론적인 삶을 떨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네 가지 면에서 이원론이 더 극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승욱:**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대로 실천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기독교수들은 자신의 신앙대로 학문을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학술지 <신앙과 학문>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학문의 영역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세,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등이 모두 성경적이어야겠지요. 교수님께서서는 합신에서 학생들의 과제를 꼼꼼히 읽고 새빨갳게 수정해 주셔서 '빨간펜'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의 논문을 많이 받아봐서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송인규:** 조직신학은 예습을 안 해오면 강의를 들어도 헤매니까, 미리 두 세 개씩 문제를 내 주어 답을 달도록 하고 그 답을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답을 빨간 펜으로 수정해 주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그냥 별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꼼꼼히 체크하다 보면 다른 일에는 별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동안에는 IVF 등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김승욱:** 그렇게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운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의 최용준 교수는 「세계관은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지요. 이러한 실천과 관련된 부분이 한국 교회가 매우 부족해서 최근에 전도도 잘 안 되고, 기독교인의 숫자도 줄어들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족함을 기독교 세계관운동과 관련하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송인규:**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 봤자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비판도 꽤 많이 있었죠. 저는 그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제 나름대로 고민도 해 봤습니다.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가장 확실히 해야 할 점은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건다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기독교 세계관“만”으로는 개인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을 두 가지 면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첫째,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는 어느 한 과

목이나 분야, 예를 들어 기독교 세계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실상은 이것을 위해서 조직신학도 있고 기독교 윤리, 기독교 교육, 설교학, 성경신학, 기독교 상담 등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기독교 세계관은 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협력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왜 유독 기독교 세계관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 비판을 받아야 할 분야는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이 과목들은 사람들의 실제적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든요. 이처럼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는 여러 과목과 분야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기독교 윤리나 기독교 교육이 좀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 세계관에만 모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 기독교 세계관만이 개인 및 공동체의 변화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 실재는 그렇지 않지만 - 가정합니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저절로 실천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의 주 관심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열개를 제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TV나 영화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으로 안내를 받는다고 합시다. 알버스 월터스의 책을 보면 구조와 방향을 기독교 세계관적 분석의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즉 구조란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바인데, 만약 TV나 영화에 나쁜 면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이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구조가 무엇인지 잘 헤아리고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TV나 영화에 관한 우리의 문화 사명이 완성되는 것이고, 바로 여기까지가 기독교 세계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개인이나 공동체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할 때,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 세계관이 기여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TV나 영화와 관련하여 젊은이들이 지나치게 TV나 영화를 많이 보는 것이 문제라면, 시간 사용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 방면에서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기독교 세계관을 들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TV에 노골적인 성표현 등이 많이 나오는데 감상자의 차원에서 어떻게 자신의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영적 훈련의 문제이지, 기독교 세계관 본연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제작자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 문화의 제작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성적 표현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 또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는, 예술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 문제, 포르노그래피의 정의, 검열의 정당성 등과 연관이 되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해결되는 않는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문화 사역과 영화 쪽으로 나가고자 하는 분이 자신이 그 속에 있다 보니 개인 경건이 너무 약화되는 것 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또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이하고 영화를 같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행위 하는 장면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바뀌려면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 시간 사용, 영성 훈련, 예술·포르노그래피·검열, 자녀 교육 등 - 이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결코 기독교 세계관이 다루는 주된 분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관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왜 기독교 세계관을 배웠는데도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느냐고 질책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기독교 세계관이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기독교 세계관에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시해야 할 것(또 이것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것)은 많은 경우 각자 경건의 훈련을 쌓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나 자신의 영성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 사용의 문제, 문화 사역자가 되는 것, 중독 문제, 아이 교육 문제, 감상자로서 시청 여부의 문제, 제작자로서 성 표현에 대한 문제 등은 사실상 기독교 세계관과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안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경건의 훈련을 기본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구조와 방향으로 어느 정도 문제의 열개를 잡아주고 사안별로 변화를 위한 실제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망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탐구센터는 이러한 회복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개 교회에도 있어 보고 신학교에서도 있어 보니 한국 교회의 회복이나 갱신과 관련해 양쪽 모두 소홀히 여기는 부분, 즉 신학교에서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개 교회에서도 다루지 않는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신학자 스프롤(R. C. Sproul)이 리고니어 미니스트리([www.ligonier.org](http://www.ligonier.org))를 시작할 때 그 취지가 신학교와 교회의 갭을 메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주제를 50여 권 이상의 책과 교육 자료로 제작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 교회 내에 이런 갭이 있는 것을 목도하곤 했습니다. 신학교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실천적인 부분을 다 보완해 줄 수 없고, 또 우리나라의 교회는 주로 성장 쪽으로 치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다룰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갭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 보겠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탐구센터가 한국 교회의 갱신이나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승욱:**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걸지만 않는다면, 삶의 변화와 관련하여 기독교 세계관의 기여 가능성과 한계성을 동시에 인식(또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김승욱:** 앞으로 어떤 사역에 힘쓰실 생각이신지요. IVF의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을 새로이 맡으셨는데, 한국 교회의 어떤 문제를 탐구하실 생각이신지요?

**송인규:** 한국 교회에 대해 상당히 많은 이들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고, 저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열



**송인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IVF 간사와 총무를 역임한 바 있으며, 총신대학교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을, 시라큐스 대학에서 철학을(Ph. D) 공부하였다. 저서로는「나의 주 나의 하나님」,「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복음과 지성」, 「고립된 성」,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이상 IVF),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홍성사) 등이 있다.

# WORLDVIEW SPECIAL



## 교회 바로보기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기획하고 진행된  
교회탐구 포럼의 4가지 주제중 3가지를 월드뷰에서 소개합니다.

교회탐구 포럼 01. 한국 교회와 직분자: 직분제도와 역할

교회탐구 포럼 03. 급변하는 직업 세계와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

교회탐구 포럼 04. 교회의 성(性), 잠금 해제?

# 교회 탐구 포럼의 취지

## ☉ 송인규

한국 교회에 변화와 갱신, 개혁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식상할 정도로 진부하게 느껴진다. 찬찬히 살펴보면 이미 그런 모임도 많고 여러 전문화된 기구나 그룹들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곳저곳 행사로 분주한 모습도 접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교회 탐구 포럼>과 관련하여, 무슨 또 하나의 “이벤트”인가 하고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다.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한국 교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탐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떤 대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경험하거나 들었던 적도 없고 비슷한 개념이나 메커니즘에 접근한 적도 없는 미(未)경험적 무지이고, 다른 하나는 친(親)경험적 무지로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경험의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다. 한국 교회의 만성적인 친경험적 무지를 벗어나기 위해 교회 탐구는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한국 교회를 이해하려는 두 가지 전통적 방도 모두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방도에는 신학 정규과목의 수강을 통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방법과 목회 현장에서 이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방안 모두 한국 교회의 진정한 이해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 방도 모두

제한적으로 기능하는데, 전자는 주제 제약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신학-목회 분열증을 역기능적으로 가속화하는 경우가 많고, 후자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에 압도되어 교회의 수적 증가에 집착하기 십상이다. 이러한 이해의 패턴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친경험적 무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것에서 한시바삐 탈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극과 각성이 요구되는데, 교회 탐구는 이것을 제공하는 중요한 방편과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한국 교회의 회복은 현 교회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을 넘어 회복적 시각이 필요한데, 회복적 시각은 비판의식과 더불어 회복에의 열망이 보유되어야 한다. 비판가는 상대방을 지적하는 비판의식에 모든 것을 걸지만, 예언자는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보유하되 그것을 넘어서 사람들과 공동체의 회복에 최종 목표를 둔다. 비판의식에 회복적 시각을 갖춰 거룩한 동일시를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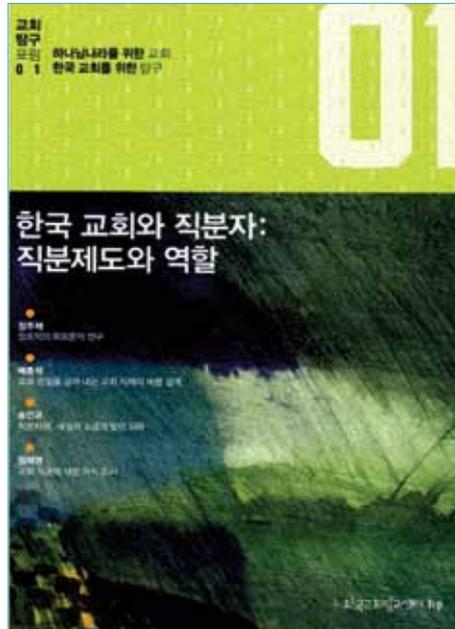
교회 탐구 없이는 회복에의 방향 제시가 불가능하고, 선지자의 마음 없이는 회복에의 동기 유발이 불가능하다. 바로 여기에 교회 탐구의 필요성과 의의가 있다.

[교회탐구 포럼01]

# 한국 교회와 직분자: 직분제도와 역할



제1회 교회탐구포럼은 “직분자의 역할,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표제로 2011년 4월 30일 사랑의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되었다. 교회 직분의 중요성을 통감하면서, 이 시대 한국 교회의 현상이 더 맑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료집을 모아 한 권의 책자로 출간하였다. 한국 교회를 모른다면 한국 교회의 개혁도, 미래도 없다. 교회 직분은 교회는 물론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 장로직(목사와 장로)의 목회론적 연구 - 목사와 장로의 목회적 협력과 균형- 정주채(향상교회 담임목사, 바른교회 아카데미 이사장)

정주채 목사는 목사와 장로 사이에 진정한 목회적 협력과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전달하기 위해, 신학적 배경과 목회적 지혜를 함께 소개한다. 직제에 대한 개념적인 연구보다 실천적인 반성과 갱신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앞부분(1-3장)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장로직분에 대해 찾아보고, 이런 직분에 관한 말씀들이 교회 역사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변천돼 왔는지를 살펴본다. 본문에 해당하는 4-6장에서는 직분과 관련된 한국 교회의 병리현상들을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거나 개혁할 수 있을지를 살핀다. 그리고 개 교회를 예로 들어, 특별히 향상교회에서 성경적인 장로직 회복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결론부에서는 교회 직분의 지상 과제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세속주의로 흐르게 되고, 직분은 책임과 헌신이 아니라 권세와 명예로 변질되고 말 것이므로 회개와 갱신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교회 본질을 살려 내는 교회 직제의 바른 설계

배종석(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기독교경영연구원 원장)

배종석 교수는 신학적 원리와 경영학적·사회학적 이론에 기초하여, 어떻게 하면 교회 직제가 교회의 본질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심층적 진단 및 방향 제시를 시도했다. 필자에 의하면, 직분은 교회 조직의 큰 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을 살려 바른 직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제는 교회의 본질적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특정 시대와 문화의 맥락에 적응해 가야 한다. 직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근간이 되는 핵심 원리, 그리고 직제 설계에 영향을 주는 성경적 패러다임과 역사적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교회 직제 설계를 위한 핵심 원리로는 권위와 자율의 균형 원리, 직분의 평등과 사역의 차등 원리 및 공동체와 조정을 위한 호혜성 원리 등이 있다. 또한 직무와 역할, 자격과 선발, 지원과 관리 등의 설계 변수들은 역사적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

을 것이고 성경적 패러다임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유연하게 수용될 수 있다. 필자는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직제와 관련된 성경의 정신과 개혁장로교의 정치 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회복을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은 훈련과 준비가 요구된다. 셋째, 직분제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의 표출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표현 방식이며, 겸손을 훈련하고 상호조력을 이루어내는 방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진중한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론부에서 필자는 ‘직분자다운 직분자’를 세워 나가는 것이 한국 교회의 급선무라고 말한다. 아무리 직제를 제대로 설계하여 조직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해도,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숙한 직분자와 성도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겠다는 헌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실을 맺기 어렵다는 것이다. 직제 승상적 자세도 곤란하지만 직제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도 안 된다고 지적하며 마무리한다.

## 직분자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송인규(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송인규 교수는 교회의 직분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성경적 명령에 근거하여, 그 의미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했다. 그는 이 논고를 통해 “사회 포괄적 직분론”에 대해 설명하며 그리스도인 직분자들이 세상 속 사명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술했다. 또 그리스도인이 견지해야 할 세상관이 무엇인지, ‘세상의 소금과 빛’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 분단에서는 어떻게 하면 직분자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구체적 방도와 지침을 제시했다. 필자는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활동 및 각종 직업 종사자로서의 사회 활동을 통한 세상 속 사명 실행의 방도를 주창했는데, 이를 위한 세 가지 점검단계로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속으로 보냄 받은 의식,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제시하였다. 필자에 의하면, 신앙적 상태와 세상 속 사명의식이 확인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삶의 활동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자신의 직업 영역이나 사회적 신분/역할을 고려해 세상 속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다. 또한 일상과 사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특정한 사안들에 집중함으로써 세상 속 소금과 빛의 사명을 논할 수도 있다. 삶의 활동 분야가 정해지고 나면 그 활동/사안과 연관해 구체적인 시행 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회 직분에 대한 의식 조사

정재영(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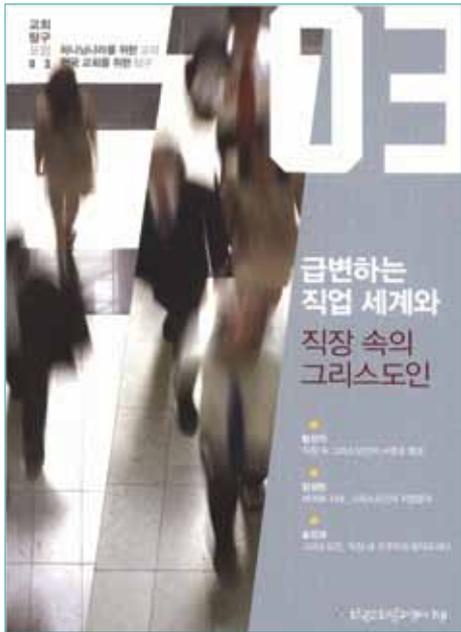
정재영 교수는 현재 한국 교회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인식과 직분자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직분자 교육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조사는 한국교회탐구센터의 ‘평신도 리더십 포럼’의 일환으로 IVF 복음주의연구소가 주관하여 교회 직분자인 장로, 안수집사 또는 남자 권사, 그리고 여자 권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교회 직분에 대한 최초 전국 규모의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는 표본이 다소 작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그동안 정확한 근거 없이 논의되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 교회의 직분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교회 직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교회탐구 포럼03]

# 급변하는 직업 세계와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



인간은 일이나 노동을 통해 자신을 파악하고 알린다. 우리는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탐색하고, 보람과 좌절, 고뇌와 환희의 드라마를 연출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일을 그저 세속적인 돈벌이나 필요악, 성공의 수단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일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업 세계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회탐구포럼의 세 번째 주제 ‘급변하는 직업 세계와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다.



### 직장 속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영성

방선기(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 교수, 직장사역연합 대표, 이랜드 사목)

오랜 세월 직장 사역에 투신해 온 방선기 소장은 “직장 속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영성”을 청지기, 군사, 종이라는 삼중적 역할을 중심으로 풀어낸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직업인에게는 ‘흠어진 교회’ 의식이 필요하다(행 8:1, 4).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모인 교회’의 사명이라면, 세상의 일터에서 일을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흠어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일 것이다.

그리스도인 직업인들은 ‘홀어진 교회’라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일터와 세상에서 분투해야 한다. 일터는 일하는 현장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일터는 갈등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속성상 세상과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일터는 그리스도인 직업인들의 사역지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직업인들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즉,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청지기, 군인, 종의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이들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쳤던 역할이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인 직업인들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과 일터에서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세계화 시대,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

임성빈(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와 문화 교수, 문화선교연구원 원장)

임성빈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이 개인의 신앙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기업 환경, 윤리적 갈등, 전 세계적 추세의 관점에서도 조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분단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직장생활에 관하여, 둘째 분단에서는 가속화되는 세계화 현상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분단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직장인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을 경영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신앙과 직장의 관계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필자에 의하면, 신앙과 직장생활의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경제체제, 사회제도와 같은 공적인 차원에서 폭넓게 이해해야 할 문제다. 세계화 시대의 건전한 직업윤리는 외형적인 윤리규범이나 원칙을 제안한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는다. 개인의 윤리적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직업과 일터의 윤리는 보다 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세계 경기의 영향을 받는 일터의 현실을 면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직장의 구성원들이 보다 근본적인 가치에 동의해야 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보상 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필자는 그리스도인다운 직장인이 되는 길에 대하여 신앙인다운 인격을 갖출 것과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윤리적 문화를 점검하고 직장 문화 변혁을 위한 과정을 수행할 것을 이야기한다. 또한 신앙적 직업윤리의 실천 과정과 이를 위한 신앙 공동체를 제시한다. 일터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삶, 그것은 정직함으로 신뢰받는 삶을 의미한다. 치열한 경쟁 환경과 녹록치 않게 변해가는 직업 환경은 한 개인이 신앙인으로서 실천하는 윤리적 노력에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건강한 직업윤리와 일터 문화 세우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직장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 터이기 때문이다.

## 그리스도인, 직장 내 구조악과 맞닥뜨리다

송인규(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개인적·공적 생활 영역 어디에나 미친다는 가르침이다. 하나님을 만유의 주재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업이나 회사, 직장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그분의 뜻을 좇아 활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가르침과 신학적 진술에 여러 형태로 집약되어 있는데, 우리의 공적 삶과 관련해 생각해 보면, 의, 진실, 선의, 공정, 성실 등이 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개인적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윤리적 규범과 상반되는 행동이나 상황을 연출하곤 한다. 직장 생활 중 하나님의 뜻과 현실 사이에 발견되는 모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그 구조 가운데 있는 개인들에게 어떤 조치를 권해야 할까? 송인규 교수는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마주치게 되는 ‘구조악’의 실체를 세세히 드러낸다. 직장 내 구조악이 무엇이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현재 한국의 직장 현실을 염두에 둘 때 구조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를 제시한다. 필자에 의하면 ‘직장 내 구조악에 맞닥뜨린다’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직장 내에서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악과 치명적 피해 사이에 택일을 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필자는 그 구체적 대응책으로 ‘잠정적 타협론’을 제시한다.

이것은 직장 내 구조악의 상황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이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도덕적 악을 택한다 해도 현장에 그대로 남아서 구조악의 점진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잠정적’이라는 표현은 ‘임시성’, ‘지향성’, ‘점진성’을 함의한다. 이런 의미에서 잠정적 타협론이 직장 내 구조악의 문제와 관련해 가장 전략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라고 판정한다. 결론부에서 필자는 잠정적 타협론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와 이를 토대로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을 보충하며 마무리한다.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업 세계의 진짜 문제에 답해야 한다. 급변하는 직업 문화 및 구조악과 더불어 고군분투하는 그리스도인 직업인의 정체성과 갈등,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변화무쌍한 직장 환경에서 날마다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애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용사들의 신앙과 삶에 교회탐구포럼에서 세 번째로 다룬 주제 ‘급변하는 직업 세계와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의 글들이 도전과 격려가 되기를 바란다.



[교회탐구 포럼04]  
**교회의 성(性), 잠금 해제?**

성(性)만큼 여러 면에서 역설적 양상을 드러내는 주제도 없을 것이다. 성은 언제나 우리의 실존적 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우리가 성적 존재라는 사실을 매우 낮설어 한다. 역설적이면서도 복잡한 성을 젊은이들은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을까?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 걱정과 혼미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될 법이나 하겠는가? 이미 젊은이들의 의식과 정신상태는 성의 생리학적·신체적 차원이 성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말이다.

제4차 교회탐구포럼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의 성 의식과 성 행동이 어느 시점에, 또 어느 정도에 도달해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침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 성이란 무엇인가 - 성경적·신학적·윤리적·생리학적 관점에서-

이상원(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교수)

이상원 교수는 성의 정체를 파악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의 성 의식과 성 행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식하고, 성욕과 성교에 대한 통전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애썼다. 또한 성적 욕구와 성교는 단지 신체적·생리학적 차원에서만 파악해서는 안 되며, 더 넓은 인격적 연합과 사랑의 지평 안에서 파악할 때 그 본질과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인간의 인격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되므로, 성욕과 성교는 신학적 차원을 아울러 지닌다. 필자는 성경적·신학적·윤리적·생리학적 관점이 모두 통합된 시각에서 어떻게 성욕과 성교가 인격적 연합과 사랑의 지평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필자에 의하면 기독교의 아가페는 성욕과 성교의 진정한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규범이다. 성욕과 성교 실현의 필수적 지평인 인격적 연합과 아가페 사랑이 가능한 무대는 결혼 뿐이다. 이것이 성교가 결혼 질서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다. 결혼은 성적 동반자에 대한 아가페의 최선의 제도적 표현이다. 상대에 대한 인격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진정한 인격적 연합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성교를 가지는 것은 동반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것이며, 이는 동반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일 수 없다. 어느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창조 시부터 종말의 날까지 지속되는 이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이 질서를 존중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표지들 가운데 하나다.

## 기독교 청년들의 성 의식 및 성 경험

정재영(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 목회사회학연구소 부소장)

정재영 교수의 “기독교 청년들의 성 의식 및 성 경험”은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천 명의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2013년 11월 25일-12월 6일까지 14일 동안 온라인으로 시행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총 37개 항목 가운데 30개 항목이 성의 주제와 연관된 것으로서, 미혼인 기독교 청년들의 성 의식과 성 경험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성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되기도 하고 또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매개가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 문제는 더 이상 은밀하게 덮어두거나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할 종류의 것이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혼전순결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1.3%, 실제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2%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기독교 청년들에게 단순히 이성교제나 스킨십 차원이 아닌 반드시 성 관련 교육을 병행해야 함을 알려준다. 특히 성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구분해 이성교제 단계에 따른 적절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성교제나 성 관련 교육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인 성 윤리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와 이번 포럼을 바탕으로 한국 교계에서 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바람직한 성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 스킨십을 청문회에 -스킨십의 진화와 재평가-

송인규(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한국교회탐구센터 소장)

송인규 교수는 스킨십의 제반 사항을 그 문제점과 더불어 제시했다. 이는 그리스도인 젊은이들로 하여금 스킨십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자신의 이성교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일종의 안내를 하기 위함이다. 예전에 비해 젊은이들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성은 훨씬 더 깊이 젊은이들의 의식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고, 자유와 분방의 노래를 부르며 성을 먹고 마시며 살아내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은 혼란과 무질서에 떠내려가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상황에서 스킨십을 청문회에 불러냈다. 첫째 분단에서는 이성교제와 스킨십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기술했다. 둘째 분단은 스킨십이 오늘날의 위치를 점하게 된 사회·문화적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데 할애했다. 아마도 셋째 분단과 넷째 분단이 이 청문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분단에서는 스킨십의 유용성과 폐해성을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묘사하고자 힘썼다. 넷째 분단에서는 기독교계에서 스킨십 문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유형별로 정리했다. 마지막 다섯째 분단은 위의 내용에 기초해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스킨십의 사안과 관련해 어떤 태도와 방침을 견지해야 할지 안내하고 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성 문제에 대한 이해나 그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청년들의 성적 의식과 행습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알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 교회가 좀 더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성적 현주소에 관심을 쏟게 되고, 이로써 한국 교회의 미래를 떠맡을 그들이 좀 더 기록하고 성숙한 성 의식과 성 관념을 가지고 이 젊음의 시기를 헤쳐 나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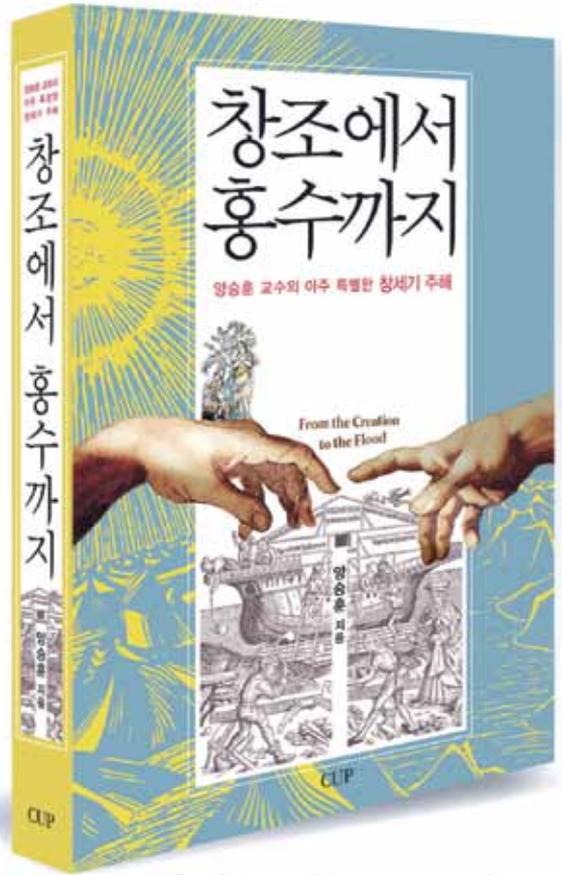
**양승훈 교수의  
아주 특별한 창세기 주해**

**창세기에서 경이로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

**과학과 성경을 넘나들며  
창세기를 깊이있고 흥미진진하게 풀어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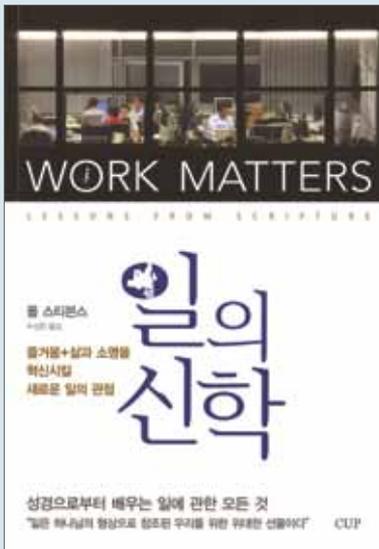
300여 권의 창세기 관련 도서를 펼쳐 봤지만, 이렇게 독특한 주석은 처음이다. 한동기평택대학교 구약학 교수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창세기를 읽으며 가졌을 법한 거의 모든 질문들을 다루고 있다. 전성민 IVEW 세계관 및 구약학 교수



양승훈 지음 | 신국병형 | 456면 | 16,000원

**“우리가 믿는 것은 창조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폴 스티븐스 지음 | 주성현 옮김 | 12,000원



**직장에서 분투하는 일터 사역자들에게!**  
폴 스티븐스, 70평생의 연구 결과가 집대성된 필생의 역작

**성경의 일터 사역자들을 만나다**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다!



# WORLDVIEW COLUMN



## 연재칼럼

배낭 메고 떠나는 세계관 운동

Institute for Faith and Learning

공감의 하나님, 공감의 경제학

의로우신 하나님, 불통(不通)의 경제



## Institute for Faith and Learning (www.baylor.edu/ifl)

☎ 최용준 (학술지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한동대 교수)

미국 텍사스 주 와코(Waco)의 저명한 기독교 대학인 베일러대학교(Baylor University) 안에 신앙과 학문 연구소가 있다. 이 연구소는 1997년에 베일러대학이 학문적 탁월성과 기독교적 헌신을 통합하는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본 연구소는 설립 이후부터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는데, 수준 높은 연구, 컨퍼런스 개최, 학생들에 대한 멘토링 등 기독교적 지성에 충실한 교육을 격려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대린 데이비스(Darin H. Davis) 박사가 소장을 맡고 있으며, 로버트 크루슈비츠(Robert B. Kruschwitz)가 선임 연구원으로, 제이슨 휘트(Jason D. Whitt) 및 로니 프리츠 2세(Ronny L. Fritz, Jr.)가 부소장으로 섬기고 있다. 그 외에 비키 슐츠(Vickie V. Schulz)가 행정을, 히더 휴즈(Heather Hughes)가 출판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소는 2007년부터 매년 10월 말에 국제적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우정, 빈곤, 세속화와 부흥, 인간의 존엄성과 미래적 인간 간호, 21세기 지혜를 위한 대학 교육, 기술과 인간의 발전, 키에르케고르, 영화와 신앙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베일러대학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본 연구소에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계속해서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으며 그동안 출판된 다양한 자료들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 외 '기독교적 반성(Christian Reflection)'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앙과 윤리에 관한 주제들을 다루는 온라인 잡지이다. 이 잡지는 현대의 다양한 윤리적 이슈들을 다루는 논문들, 서평, 인터뷰, 예술, 예배, 찬양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교회로 하여금 기독교적 윤리, 예배 및 예술관을 정립하도록 돕고 있으며, 개인 및 그룹 스터디 가이드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다.

모쪼록 우리 동역회가 이 사이트들을 잘 활용하여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용준** 서울대(B.A),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M. Div.),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철학부(Drs.), 남아공 포체프스트롬(현 노스웨스트) 대 철학부(Ph.D)에서 수학하였다. 필른한빛교회,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 역임, 한반도국제대학교대학원 교수 역임하였으며 현재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MEW) 및 벨기에 북음신학대학원(ETF) 객원교수이자 한동대 글로벌에디슨학부 교수 및 학문과 신앙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 외로우신 하나님, 불통(不通)의 경제

김태황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학회장, 명지대 교수)

## 공감의 하나님, 공감의 경제학

1.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의 시도 : '공감의 경제학'
2. 외로우신 하나님, 불통(不通)의 경제
3.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



## 불통 경제 해소의 실마리

하나님도 외로우셨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시고서는 사 고공치 인간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었을 터이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자랑하신 하나님께서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 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대화 상대가 되었고, 그 덕분에 하나님에 이끌려 에덴동산을 경작하는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창 2:15). 이러한 인간 창조의 과정을 통해 오늘날 동맥 경화증을 보이는 경제 현상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소통과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제 현상은 외로우신 하나님의 심정에서 해소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 불통의 경제 현상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산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2만 4,329달러로 세계 33위로 상승했다(2008년 41위). 올해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여전히 경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약 3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통화량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시행하였고, EU도 재정위기 국가들을 지원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유통시켰다. 일본도 20년 전부터 0%대의 금리와 아베 정권의 경기 부양책으로 역시 ‘돈 잔치’를 벌여왔지만 체증은 여전히 실정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2013년 우리나라 10대 그룹 전체의 사내 유보금은 총 470조 8,000억 원 규모로 2012년에 비해 8.8%가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기업의 대출 규모는 39조 7,000억 원에서 20조 1,000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3년 가계의 금융 대출 규모는 1년 만에 9조 원 증가하여 59조 4,000억 원에 도달한 동시에 잉여 자금 규모도 2012년보다 3조 6,000

억 원이 증가하여 87조원 규모가 되었다. 또한 장기성 예금은 감소하고 단기성 예금은 약 35조 원이나 증가하여 50조 5,000억 원 규모로 급상승했다. 요약해 보면, 가계는 늘어난 부채로 소비를 증가시키기보다는 단기성 예금으로 잉여 자금을 늘였다. 기업은 부채를 줄여 금융비용을 낮추었지만 투자를 증대시키거나 배당금을 인상시키는 대신 기업 금고에 현금을 더 쌓아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에 자금 순환이 위축되고 느려지게 된 것이다. 그 덕분에 애가 탄 정부는 자금의 유동성을 높여보려고 재정 지출을 증대시켰고 국가 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라면 가계의 소득과 기업의 매출 이익이 감소하여 잉여 자금 또는 유보금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런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생산과 소비, 저축과 투자, 노동(자본) 투입과 소득 등의 순환 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도 전형적인 불통의 경제 현상이다. 청년들은 취업이 어려워 온갖 ‘스펙’쌓기에 열중하고,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여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단순 기계 작업 현장 등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일자리는 국내 기능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어렵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 인력의 공급이 늘어나면 임금이 내려가고 이에 따라 인력 수요가 다시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임금과 근로 복지 수준이 개선되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대기업 선호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왜 이렇게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역행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제도 사이에 공감능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국가 경제는 심각한 병치레를 치루며 마비되어 갈 것이다.

## 불통의 대가

경제는 인체와 닮았다. 인체에 피가 원활하게 순환되어야 생명의 활기가 있듯이 경제도 생산요소,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돈'(자본)의 흐름이 원활해야 활성화될 수 있다. 체중이 70킬로그램인 사람의 몸속에 있는 약 5.6리터의 피는 1분에 온몸을 한 번 돌 정도로 쉴 새 없이 순환한다. '피'가 응고되면 생명체의 수명이 다하는 것처럼, '돈'의 흐름이 정체되면 자본주의 경제는 마비된다. 돈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원활하게 '순환하는 것'이다. 피가 많더라도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응고되어 치명적인 것처럼, 돈도 한 곳에 집중되면 경제를 불구로 만들게 된다. 은행에 돈이 쌓여 있는데 기업 대출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소득이 고스란히 돼지 저금통(집안 금고)에 쌓인 채 소비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기업이 이윤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기만 한다면,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재정 지출을 하지 않는 등의 상황은 가계나 기업, 정부의 현금 자산은 늘어날지언정 국민경제를 심각한 동맥 경화증의 위기에 빠지게 한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1억 원의 소득을 금고에 그대로 보관해 두기만 하면 1억 원의 가치만 간직할 뿐이다. 하지만 그가 소득의 25%는 저축하고 75%는 필요에 따라 소비하면 7,500만 원은 돌고 돌아서 4배인 4억 원의 가치를 창출한다(화폐 승수효과). 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경우와 돌고 도는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같은 사람이라도 환자일 때와 건강할 때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 소통의 열쇠 : 공감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약 2.5배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이 37.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50% 보다 크게 낮음을 고려해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국제적 수준에서도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가 올 4월 발표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 대책>은 교육→직업 훈련→인턴→취업의 단계별 연계성을 높이고 청년 인력과 기업의 현실적인 일자리 공감대를 넓히려고 안간힘을 쓴 것으로 보

인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강제로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아무에게나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없다.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불하고 지급받을만한 노동력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선호하는 만큼 모든 기업도 좀 더 우수한 인력을 선호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라 쌍방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시장 교환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 문제를 예로 들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인력을 찾는 기업의 경제적 높낮이와 가치관이 서로 공감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만남이 형성될 수 있다.

청와대에서 아무리 근엄한 목소리로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강조해도 대기업 스스로가 투자를 확대할만한 시장 여건을 예견하지 못한다면 사내 금고에 돈을 쌓아둘지언정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를 확대하기란 어렵다.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이 아무리 앞장서서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자신의 미래 소득이 불확실하다면 소비자는 소비를 증대시키기가 어렵다. 일본의 소비자는 20년간 지갑을 닫았다. 반면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제 순환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공감한다면 생산자는 내일의 이윤 증대를 기대하며 오늘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자는 내일의 소득 증대를 기대하며 오늘 소비를 늘릴 수 있을 것이다.

## 외로움과 불통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창 2:15). 왜 하나님께서 전권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경작권을 위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으로 지으신 인간과 소통하고 공감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100%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공감하여 당신의 길을 따르도록 이끄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경제 활동과 정책의 목표를 성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은 매우 실용적이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 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다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설령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 성과 달성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자칫 탐욕과 부정부패에 노출될 우려가 커진다. 돈의 위력은 우리 인간의 자제력을 초월한다는 사실은 성경에서도 반복하여 강조되고 있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무수히 경험해 오고 있다. 이는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활동해야 하는 유한한 상대적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과 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수 있는 여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잠 16:1-9). 즉 하나님께서 말씀꾸러기 인간에게 땅을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면서 인간과 더불어 일하시듯이 우리도 적자생존의 진화론적 접근이 아니라 공감상생의 창조론적 방식으로 경제제민(經世濟民)해야 할 것이다.

공감의 원리로 동맥 경화증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생각은 사회주의 체제의 절대적 평등과 분배의 이념과 상통하는 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 공감의 생각에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있고 수직적 권력이 아닌 수평적 이해가 있다. 공감의 경제학은 다양하고 차등적인 개인의 자유로운 독창성과 재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독자성과 공동체성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이끌어가는 근간이다. 초대 교회의 공동체가 사회주의 이념의 원형이 되었고 칼빈의 종교개혁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주춧돌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감 패러다임은 이념의 틀에 갇힐 수 없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방해 나아갈 따름이다.

공감의 경제활동이 혹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경제는 100미터 달리기보다 마라톤이다. 창조와 공감의 과정 및 결과는 영원한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시간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불통의 경제에 돌파구를 뚫는다고 내 몸을 혹사시키고 상대방을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나의 필요에 타인을 초청하고 타인의 필요에 내가 찾아가서 적응해야 한다. 개인과 기업, 정부, 시민단체가 각각 상이한 경제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조절하며 다가가는 과정과 절차를 중요하게 이행해야 한다. 한통속이 되어야 한다든지 한 패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획일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의 메아리를 듣고 목을 가다듬어 다시 산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이다.

경제학은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경제적 의사결정은 사람이 한다. 경제학이 사회 현상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해석하고 대응하려고 애쓰는 만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닮아갈 수 있는 길도 동시에 탐구해야 한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가 부익부 빈익빈의 치우침과 불통의 중증 장애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경제학이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과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명지대와 하와이 열방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크리스천최고경영자과정(C-LAMP)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 앨빈 플랜팅가 신 · 자유 · 악

이경직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장)

서평을 쓰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처럼 후회한 적이 없다. 어떤 책에 대해 평가를 하려면 그 책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소개해야 하는데, 플랜팅가의 『신 · 자유 · 악』은 정독을 요구하는 책이기 때문이다. 결국 원고 마감일을 넘기고 말았고, 이번 호에는 꼭 서평을 보내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원고 마감일을 앞두고 있다. 좋은 서평은 독자로 하여금 그 책을 읽고 싶게 만들고, 그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이 책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기보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의를 이야기함으로써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한다.

번역자 김완중은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연세대 석박사과정에서 철학을 공부한 차세대 기독교 철학자이다. 이 책의 번역은 신뢰할 만하다. 역자가 거의 15년에 걸쳐 이 책을 공부하면서 번역했을 뿐 아니라 우호용 교수와 함께 정독하면서 초역을 다듬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오랜 시간 원서를 공부하면서 번역하는 일은 드물고도 귀한 일이다.

저자 앨빈 플랜팅가(1932년생)는 기독교 철학자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람이지만, 그의 중요성에 비해 그리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네덜란드 이민자 가정에

서 태어난 그는 오늘날 개혁신학을 배경으로 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미국의 기독교 대학 중 하나인 칼빈칼리지에서 19년간 가르쳤고 1982년부터 노틀담대학교에서 오브라이언 석좌교수로 가르치다가 은퇴한 후 2010년 칼빈칼리지로 돌아왔다. 그는 또한 미국 철학회 회장과 기독교철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플랜팅가는 기독교 철학이 '등근 사각형'과 같이 모순된 개념이라는 생각이 팽배했던 20세기 중반에 몇몇 기독교 철학자들과 뜻을 모아 기독교 철학 운동을 일으켰다. 그는 분석철학이 지배적이던 미국 철학계에서 날카로운 논리와 분석도구를 사용해 종교철학, 인식론, 형이상학, 기독교 변증 분야에서 기독교 철학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인식론 분야에서 그의 대표작은 『신과 타자의 정신들』(God and Other Minds, 1967년, 이태하 역, 살림)과 『필연성의 본질』(The Nature of Necessity, 1974년), 『신, 자유, 악』(God, Freedom and Evil, 1989년), 『보증된 기독교 신앙』(Warranted Christian Belief, 2000년) 등이다. 최근에는 기독교와 과학이 양립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과학과 종교- 갈등의 지점은 어디인가?』(Where



the Conflict Really Lies: Science, Religion, and Naturalism, 2011년)를 출간했다. 그의 두 아들은 칼빈칼리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두 딸은 각기 목사와 카메룬 성경번역선교사로 사역 중이다.

『신·자유·악』을 이해하려면 플랜팅가의 이전 작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예일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웨인즈주립대학교(Wayne State University) 철학과 교수가 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많은 무신론 철학자들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는 요구에 시달렸다고 회고한다. 그는 그들과 수많은 논쟁을 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끌어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입증하는 논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결

론을 담은 책이 1967년에 출간된 『신과 타자의 마음』이다. 그에 따르면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는 믿음처럼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논증이 필요 없는 기본신념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들에게 지성이 있듯이, 상대방에게도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지



성이 있다고 전제한다. 그런데 이 전제는 증명되어야 할 믿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지니고 있는 참된 상식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믿음도 신앙인에게는 자연스러운 상식이며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1963년에 칼빈칼리지의 철학교수가 된 플랜팅가는 그의 철학 작업에서 한 걸음 더 내딛게 된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한 신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선하신 하나님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시고 모든 면에서 선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 전통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을 만드시거나 허용하실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악의 논리적 문제로, 악의 존재는 그런 하나님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플랜팅가는 악의 논리적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자유롭지만 악을 선택하지 않는 피조물이 있는 세계를 창조할 수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선하셔도, 자유로운 도덕적 피조물이 있어야 도덕적 선이 의미 있다면 악이 있는 세계를 창조하시기를 바라실 수도 있다. 많은 학자들은 플랜팅가의 이 주장이 도덕적 악과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여겼다. 달리 말하면, 전능하시고 전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도덕적 악과 양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키(J. L. Mackie)는 플랜팅가의 주장이 '전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자연적 악을 만드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플랜팅가의 입장은 자유의지 옹호론(Free Will Defense)이라 할 수 있다. 매키와 같은 학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연적 악이 양립할 수 없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플랜팅가를 비판한다. 플랜팅가가 이 책에서 보여준 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플랜팅가는 자유의지 옹호론과 자유의지 신정론을 구분한다. 자유의지 신정론은 자유의지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악을 허용하셨는가에 대한 답이다. 플랜팅가는 이 질문에 대해 충분히 답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지전능전선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악의 존재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의 자유의지 옹호론은 전지전능전선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악의 존재와 모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작업일 뿐이기 때문이다.

플랜팅가에 따르면 신이 도덕적 선만 있는 세계를 창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 전지성과 전능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지하고 전선한 신이 도덕적 선이 있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도 가능하다. 이는 그러한 신이 악도 있는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따라서 매키와 같은 학자들의 전제, 즉 자유의지를 지닌 하나님의 존재와 악의 존재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전제는 필연적으로 참이 아니다.

이 책의 1부가 매키와 같은 학자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소극적 작업을 담고 있다면, 2부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 존재가 있다는 믿음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적극적 작업을 담고 있다. 플랜팅가는 전통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사용되었던 논증 중에서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논증을 자기 방식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이 작업을 해낸다. 이 책 이후 그의 작업은 이 일을 더 치밀하게 해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분량은 적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고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기독교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는 없다. 또한 그것이 플랜팅가의 의도도 아니다. 하지만 세상에 악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기독교의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역에서 탁월함을 보일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이 책은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플랜팅가의 연구는 너무 분석적이고 전문적이어서 그 유명세와 업적에 비해 한국 독자들에게 잘 소개되지 못하고 있다. 김완중, 우호용 두 분의 역자가 심혈을 기울여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이 책을 한국 독자에게 소개해주신데 깊이 감사한다. 이 책을 통해 한국 기독교 철학계의 논의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또한 시간을 내어 이 책을 뜻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정독한다면 기독교 철학의 새로운 세계를 맞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쉽지만은 않은 책을 오랜 세월 정확하고도 쉽게 번역한 두 번역자와,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의미 있는 책을 출판하기로 용단을 내린 SFC 출판사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이경직**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Konstanz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논문을 썼다. 백석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신학석사, 신학박사를 마쳤으며, 현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장으로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Platons Raumbegriff』, 『기독교와 동성애』, 『기독교철학의 모색』,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생애와 사상』, 『플라톤과 기독교』가 있고, 공저로는 『신앙과 논리』, 번역서로는 『사랑의 모델』, 『헬레니즘 철학』, 『철학자 예수』, 『공간 개념』, 『기독교철학』 등 13권이 있으며, "이신칭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믿음 이해"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 학교영역

##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

###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 실천가이드북

지난 2012년부터 자발적불편운동을 펼쳐 온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을 발간했다. '자발적 불편'은 스스로 편리를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여 조금 불편하게 사는 삶이며 이웃과 약자를 위해 나눔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 자발적 불편을 실천하자는 기윤실의 자발적불편운동은 편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십자가 정신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고한다.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은 집중적으로 실천할 행동 30가지를 선정해 자발적불편운동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그 중 학교영역에서 실천가능한 일들을 소개한다.

#### 1. '진짜 공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는,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는 일의 즐거움과 소중함을 알고 어린 시기부터 자신의 때에 맞는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러나 부모의 과한 욕심으로 본의를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모는 아이의 실력보다 한걸음 뒤에서 따라가며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독서하는 능력을 키우고, 학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예상문제를 짚어 주는 학원을 다니거나 남보다 진도를 더 빨리 나가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배움에 대한 즐거움에서 비껴가게 한다. 사교육에 의존해온 타율적인 학생이나 남과의 경쟁을 선점하기 위해 선행학습과 같은 방법으로 정직한 경쟁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은 자기 삶의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 아이에게 무리한 진로를 설정하여 부담을 지우기보다 성적과 등수가 아닌 미래 직업에 대해 관심과 의욕을 갖도록 북돋워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아이에게 주어진 본연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이가 찾아 누리도록 많은 믿음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겠다.

#### 2. 선생님, 쉬는 시간에 학생과 함께해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공간은 쉬는 시간(44.5%), 교실(45.2%)이다. 즉,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폭력피해를 입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많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아이들이 바라는 가장 큰 대책은 소박하게도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교실에 함께 계시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쉬는 시간 10분은 귀한 시간이지만 쉬는 시간에 교무실 컴퓨터 앞이 아닌 아이들과 함께있기를 선택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쉬는 시간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책상을 마련해 두도록 하자. 교실에 있는 동안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거나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관찰하거나 한 명씩 불러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다. 중등교사의 경우, 수업 종료 종이 울리면 바로 수업 준비를 해서 일찍 교실로 들어가자. 수업이 연속으로 있을 경우 교무실에 들르지 않고 바로 다음 교실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 초등교사의 경우 티타임이나 다른 업무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교실에 있을 동안에도 행정업무를 하기보다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 3. 교활한 커닝문화, 정직함으로 맞서라!

과거에는 커닝이라 하면 친구의 시험지를 살짝 훑쳐보는 정도였지만, 최근의 커닝은 더 담대하고 교묘해져가고 있다. 심지어 커닝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커닝을 하지 않는 학생이 미련한 학생 취급을 받기도 한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커닝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커닝을 돕지도 말아야 한다. 부끄러운 A보다는 당당한 B를 받자는 것이다. 두 번째, 서명 캠페인이나 피켓 캠페인 등 적극적으로 학교 내에서 커닝문화 추방 캠페인을 진행해 보는 것이다.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짐이 될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어른들의 행동이 필요하다. 성적이 조금 못 나오더라도 정직히 시험을 본 것과 공부한 자세를 칭찬해 주어야 한다. 그런 부모와 선생님을 통해 자녀와 학생들은 정직의 중요성을 배울 것이다. 커닝(Cunning)은 교활하다는 뜻이다. 정직과 바른 인성, 교양을 배워야 할 학교에서 교활한 커닝문화를 배운다면, 그들이 이끌어갈 사회는 볼 보듯 뻔하다. 우리가 먼저 작은 것부터 정직함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대학 내 품앗이, 대리출석은 이제 그만

대학생들 사이에 대리출석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교양수업 등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곤 한다.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대리출석을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주거나 받거나 하며 대리출석 품앗이는 계속된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서로 대리출석을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수업에 오지 않은 친구의 이름이 호명될 때 자연스럽게 대신 대답을 해주기도 한다. 신앙의 열매 혹은 지표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크게 티가 나지 않는 삶의 영역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한다. 정직함, 의로움, 공정함. 이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성품이기도 하다. 대리출석은 점수를 매기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게 하며, 또한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을 속이는 행동이다. 요즘에는 대학가에 대리출석 아르바이트가 생겨날 정도로 아무 죄책감 없이 거짓행동들이 만연해져 가고 있다. 이런 부정직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는 대학 분위기에서 대리출석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출석하여 수업에 임하는 것은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발적 불편이 될 것이다.

### 학교에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 1. 음식물 남기지 않기

학생과 선생님, 교수님들은 매일 점심 한끼를 학교에서 해결한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도 엄청나다. 학교 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보자.

#### 2. 소풍, MT갈 때 일회용품 챙기지 않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매년 소풍을 간다. 대학생들은 MT를 간다. 도시락도 싸고 각종 간식들도 챙기는데, 이를 준비할 때 편리보다 환경을 생각하여 일회용품을 줄여보자.

#### 3. 강의실에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대학생들은 한 강의실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 그래서인지 수업시간 이후 강의실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다고 한다. 잠시 사용하는 강의실이라도, 다음에 사용하는 학생과 교수님들을 위해 깨끗이 사용해야 한다.

#### 4. 문구류 끝까지 사용하기

각종 문구류를 끝까지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보통 잃어버리거나 고장이 나서 새로 사게 된다. 끝까지 아껴서 사용하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5. 선생님과 제자간 서로 존중하기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폭력과 갈등으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선생님은 학생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제자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6. 정직하게 공부해서 실력 쌓기

지금 나의 성적이 정말 나의 실력인지를 돌아보자. 레포트를 베끼지는 않았는지, 커닝을 하지는 않았는지, 단지 점수만 높이기 위해 요령을 피우지는 않는지, 정정당당하게 공부하여 진짜 실력을 쌓도록 하자.

※ 기윤실에서 발행한 <행복을 위한 불편레시피 30>을 요약하였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윤실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cemk.org](http://www.cemk.org)

C. S. 루이스의 판타지 문학의 고전 <나니아 연대기>로 수업하기

#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나니아 여행



교과서에 조각난 채 실린 문학작품이 아닌  
**'살아 있는 책'**으로 국어 수업하기  
부모와 교사를 위한 탁월한 안내서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나니아 여행> 시리즈는 좋은 책을 깊이 있게 읽는 방법과 전형적인 교과서의 한계를 넘어선 통합적인 교육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독후활동을 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국어 영역의 수업 내용뿐 아니라 도덕성과 가치관 교육의 도덕 영역, 민주시민의 자질과 준법,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선택활동을 통해 음악, 미술, 체육의 영역까지 다루고 있어, 다양한 교육법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나니아 여행> 시리즈

-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나니아 여행 1 사자와 마녀와 옷장으로 국어 수업하기
-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나니아 여행 2 마법사의 조각으로 국어 수업하기
-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나니아 여행 3 말과 소년으로 국어 수업하기
-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나니아 여행 4 캐스피안 왕자로 국어 수업하기
-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나니아 여행 5 새벽 출정호의 항해로 국어 수업하기 (출간 예정)
-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나니아 여행 6 은의자로 국어 수업하기 (출간 예정)
-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나니아 여행 7 마지막 전투로 국어 수업하기 (출간 예정)



※ 이 시리즈는 교사용 지도서와 나니아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기독교 초소콜 가정과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한 교재 및 커리큘럼을 공급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학문과 성경을 통합한 도서 및 교재를 소개함으로써 통합적 사고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독교교육 전문서점 새롬사 서구로 353 / Tel. 02-529-7727 / 홈페이지 www.dctybooks.co.kr (출판사에게 회원가입을 하시면 새롬사/앤어스/24시간 교육상담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

# 옥스퍼드대 교수와 무지렁이 농사꾼의 선언,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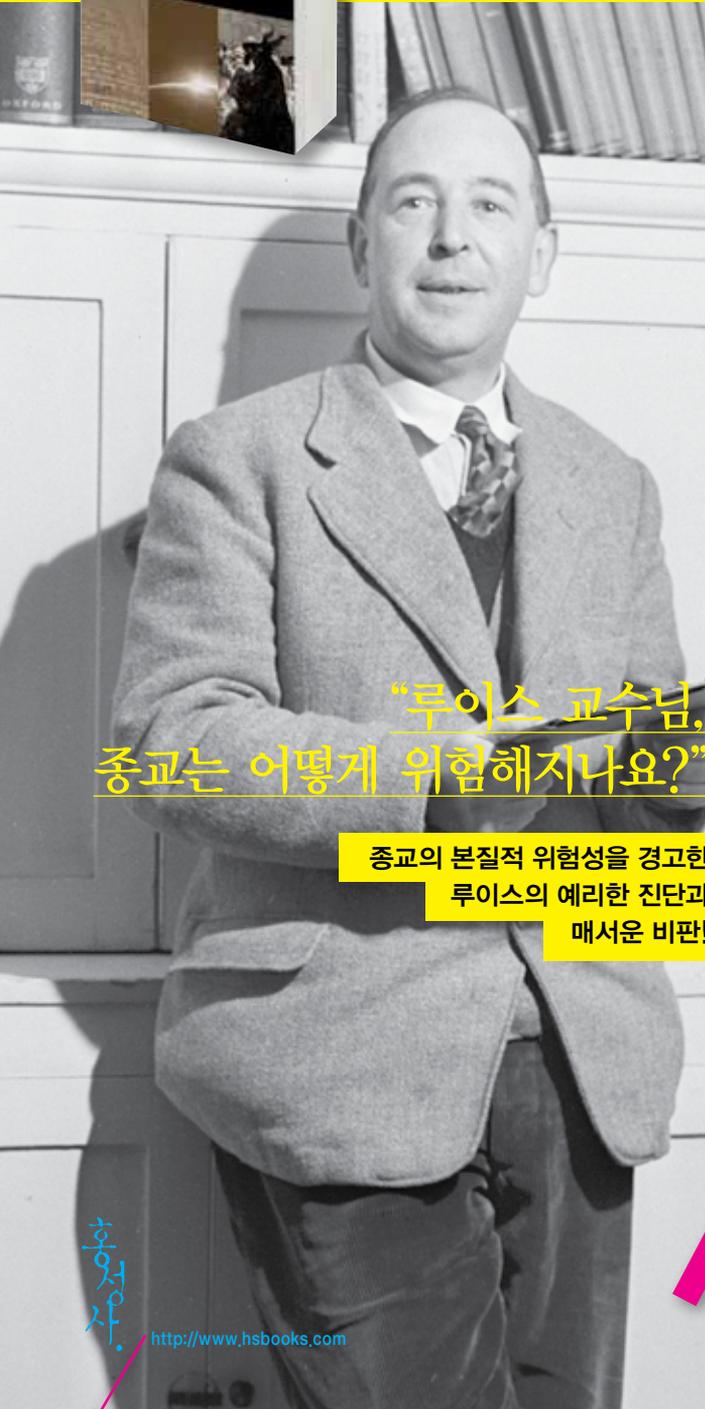


## 세상의 마지막 밤

The World's Last Night and Other Ess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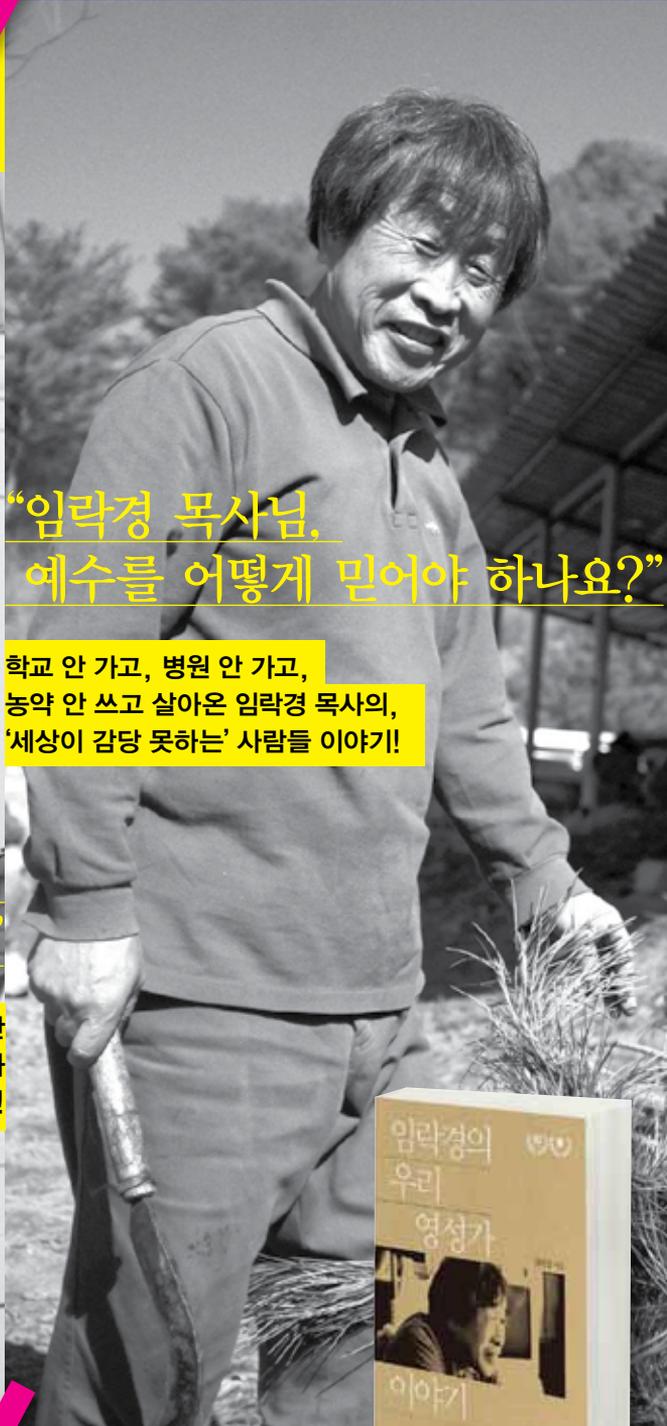
C. S. 루이스 지음 | 홍중락 옮김

A5변형 | 양장 | 152면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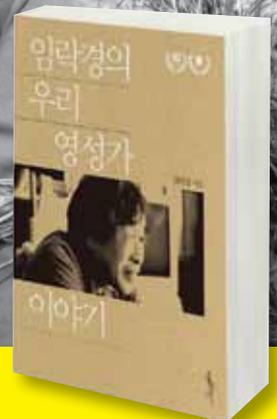
“루이스 교수님,  
종교는 어떻게 위험해지나요?”

종교의 본질적 위험성을 경고한  
루이스의 예리한 진단과  
매서운 비판!



“임락경 목사님,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학교 안 가고, 병원 안 가고,  
농약 안 쓰고 살아온 임락경 목사의,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



## 임락경의 우리 영성가 이야기

임락경 지음 | A5변형 | 464면 | 15,000원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4년 7월 31일 마감기준)

| 수입 항목  | 세부 항목      | 금액        | 지출 항목      | 세부 항목   | 금액        |
|--------|------------|-----------|------------|---------|-----------|
| 경상수입   | 이사회비       | 4,350,000 | 인건비        | 일반급여    | 3,400,000 |
|        | 임원회비       | 580,000   |            | 기타급여    | 550,000   |
|        | 일반회비       | 4,357,500 |            | 소계      | 3,950,000 |
|        | 기관후원금      | 4,100,000 | 경상비        | 사무실임대료  | 550,000   |
|        | 기타후원금      | 200,000   |            | 사무실관리비  | 371,000   |
|        | 월보구독료      | 680,500   |            | 통신비     | 375,970   |
|        | CTC후원금     | 300,000   |            | 우편료     | 66,050    |
|        | 사무실후원금     | 1,150,000 |            | 소모품비    | 256,295   |
|        | 기타         | 0         |            | 비품      | 0         |
|        |            |           |            | 식비      | 380,900   |
|        |            | 복리후생비     |            | 856,630 |           |
|        |            | 회의비       |            | 266,030 |           |
|        |            | 회계용역비     |            | 220,000 |           |
|        |            | 기타        | 626,550    |         |           |
|        |            | 소계        | 3,969,425  |         |           |
|        |            |           | 연구지원비      | 도서구입비   | 0         |
|        |            |           |            | CTC후원금  | 318,625   |
|        |            |           |            | 소계      | 318,625   |
|        |            |           | 출판(회지)     | 월드뷰구입비  | 2,000,000 |
|        |            |           |            | 발송비     | 609,990   |
|        |            |           |            | 소계      | 2,609,990 |
| 기타수입   | 포인트환급      | 31,431    | 출판(회지)     | 세금      | 3,960     |
|        | 기타수입       | 301,610   |            | 기타      | 0         |
|        | 소계         | 333,041   |            | 소계      | 3,960     |
| 학회     | 학회이사회비     | 100,000   | 학회         | 학술지인쇄비  | 2,710,000 |
|        | 학회자료집판매    | 37,500    |            | 학술지발송비  | 566,350   |
|        | 학술지심사비     | 630,000   |            | 학술지심사료  | 810,000   |
|        | 학술지게재료     | 0         |            | 학회기타    | 221,500   |
|        | 소계         | 767,500   |            | 소계      | 4,307,850 |
| 당월 수입액 | 16,818,541 | 당월 지출액    | 15,159,850 |         |           |
| 전월 이월액 | 25,367,020 | 차월 이월액    | 27,025,711 |         |           |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4년 7월 31일 마감기준)

| 수입 항목    | 세부 항목      | 금액        | 지출 항목      | 세부 항목     | 금액        |
|----------|------------|-----------|------------|-----------|-----------|
| 광고수입     | 월광고비       | 1,550,000 | 인건비        | 직원급여      | 1,600,000 |
|          |            |           |            | 기타급여      | 0         |
|          |            |           |            | 소계        | 1,600,000 |
|          |            |           | 제작비        | 교정비       | 160,000   |
|          |            |           |            | 편집비       | 300,000   |
|          |            | 디자인비      |            | 990,000   |           |
|          |            | 인쇄비       |            | 2,069,540 |           |
|          |            | 기타제작비     |            | 0         |           |
|          |            | 소계        | 3,519,540  |           |           |
| 기타수입     | 월드뷰판매비     | 2,000,000 | 경상비        | 사무실임대료    | 275,000   |
|          | 사무실후원금     | 250,000   |            | 복리후생비     | 619,290   |
|          | 기타수입       | 188,690   |            | 회계용역비     | 110,000   |
|          |            |           |            | 회의비       | 29,200    |
|          |            |           |            | 소계        | 1,033,490 |
|          |            | 기타지출      | 세금         | 26,020    |           |
|          |            |           | 기타         | 15,400    |           |
|          |            |           | 소계         | 41,420    |           |
| 미디어 아카데미 | 미디어일반등록    | 0         | 미디어 아카데미   | 미디어강사료    | 1,000,000 |
|          | 미디어기타      | 0         |            | 미디어행사준비   | 0         |
|          | 소계         | 0         |            | 소계        | 1,000,000 |
| 당월 수입액   | 3,988,690  | 당월 지출액    | 7,194,450  |           |           |
| 전월 이월액   | 40,240,145 | 차월 이월액    | 37,034,385 |           |           |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합니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31일 마감)

##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가월현, 구재형, 권기웅, 김경현, 김고운, 김동찬, 김민지, 김성욱, 김수경, 김영주, 김은호, 김찬호, 김태우, 김형근, 김희원, 박사라, 박상희, 박준현, 박지만, 생명의강, 엄지은, 영음사, 유성욱, 이명준, 정세열, 정필규,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원길, 최희정, 하태실, 함께하는교회, 황귀희 5천 강은주,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성욱, 김성은, 김성찬, 김영윤, 김은경, 김정영, 김정삼, 김정원, 김정준, 김재우, 김준, 김지수, 김철수, 김태윤, 김형아, 김혜창, 노승욱, 노주하, 박광재, 박승훈, 박찬규, 배기선, 배도범,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신기혁, 신찬용, 심정하, 양혜영, 우수민, 유은자, 유충열, 윤경숙,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영홍, 이윤희, 이은미, 이인수, 이종희, 이향숙, 임선재, 임춘택, 임형준, 임효숙, 장한일, 전광학, 전정진, 전중국, 정범재, 정봉현, 조은아, 조인진,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7천5백 김찬진, 고상섭, 김영숙, 김영환, 김은미, 김은빈, 김효태, 민수진, 박현빈, 방선기, 영암교회, 이병주, 이상훈, 이은순, 이주희, 전영식, 정원길, 정찬주, 진영규, 최경복 1만 David Han, 강석현, 강승모, 강연정, 강은정, 강호영, 강효식, 고선욱, 고연경, 고재호, 고현경, 곽정인,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갈원평, 김경식,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고운, 김광순, 김근배, 김기현, 김남진, 김동준, 김미아, 김미혜, 김범식, 김보경, 김상범, 김선일, 김성경, 김성민, 김성은, 김성인, 김세령, 김세원, 김세중, 김수홍, 김승남, 김승호, 김양호, 김영배, 김영옥, 김영호, 김요한, 김용석, 김우신, 김원호,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은혜, 김은혜,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정진, 김정호, 김종국, 김중훈, 김진성, 김진아, 김판일, 김 혁, 김형길, 김홍섭, 김홍제, 김효숙, 나윤숙, 남서희, 라영환, 류지호, 류현모, 마민호, 문소영, 박광국, 박경원, 박기인, 박능안, 박동현, 박두석, 박두한, 박상호, 박성인,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한배, 박혜일, 박현경, 박혜경, 박희주, 배세원, 배인교, 배지연, 백경은, 백현준, 빛과소금교회, 서유미, 서화진, 성광원, 성명순, 소중화, 손현탁, 송중철, 송철호, 신경규, 신동민, 신상현, 신성자, 신진성, 신현주, 신형균, 신호기, 신호영, 안병일, 안 석, 안영희, 안용준, 양행모, 양혜원, 오경욱, 오성호, 오지순, 옥재호, 유건호, 유경상, 유경숙, 유동준, 이상원, 유영준, 유은희, 유지황, 유창은, 유해무, 유화원, 유희진, 윤상현, 윤천석, 이갑두, 이강, 이경숙, 이계심, 이권철, 이규현, 이기훈, 이길형, 이란,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현, 이문원, 이상급, 이상무, 이상수, 이상환, 이상수, 이승엽, 이시영, 이언구, 이연의, 이용규, 이원배,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은주, 이은혜,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현, 이종국, 이준성, 이지숙, 이지연, 이진영, 이학성, 이해리, 이호선, 이환일, 이희진, 임동진, 임수연, 임 영, 임일택, 장승재, 장영창, 장옥경, 장유진,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태준, 전동일, 전명희, 전성구, 전장원, 정경식, 정동섭, 정상록, 정세준,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정숙, 정진우,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미연, 조백형, 조승희, 조용현, 조은국, 조은향, 조재천, 조현용, 조혜경, 조혜신,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삼열, 최세진, 최영수, 최윤영, 최진우, 최진호, 최한빈, 최호영, 추진연, 태영숙, 하성만, 하진호, 한인관, 한정호, 한진영, 한혜실, 한화진, 한현정, 허 현, 현승건, 현하나, 홍선호, 홍정석, 홍준호, 황기철, 황도웅, 황세환, 황익서, 황태연, 황혜숙, 황혜정 1만5천 김선화, 김현경, 김효순, 유익신, 정상섭, 최동원 2만 강대훈, 강용란, 김용식, 김민숙, 김정호, 김준희, 나동훈, 노경순, 노용환, 도은영, 배성민, 백은석, 변우진, 우시정, 이 건, 이명희, 이요한, 이인아, 조주영, 조창근, 최성두 2만5천 문석윤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김윤정, 김지원, 문준호, 박상진, 박신현, 박영주, 서성록, 양성만, 오의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희, 이은실, 이종철, 임학희, 조무성, 최용준, 추태화, 황정진 4만 김세광, 오한나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김영완, 박문식, 박미하, 서진희, 신국원, 유석찬, 정은모, 정희영, 조성태,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6만 장호광 8만 권정아 10만 김원수, 김의원, 박상은, 손봉호, 송인규, 양인평, 윤완철, 전광식, 최태연 12만 최정일 21만 정영록 23만 장수영 50만 김승욱 60만 김승민 300만 무명

계 11,618,000원

## 기관후원

5만 개봉교회, 대구서교회, 새길침례교회, 성덕중앙교회, 중앙대학안성교회, 한가죽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온공동체교회, 마포중앙교회, 부천침빛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연약교회, 열린교회, 예심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20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100만 새로문교회

계 4,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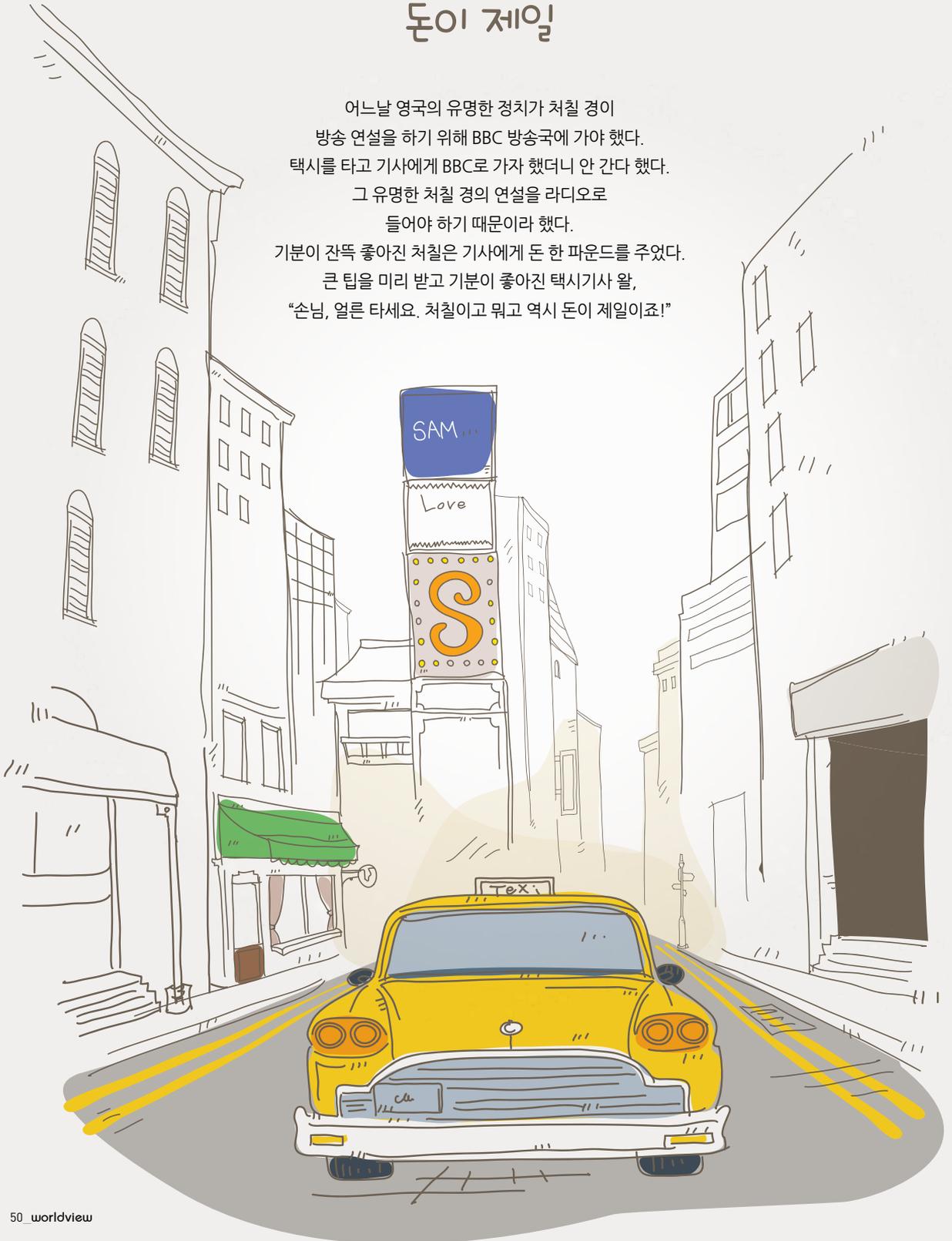
『월드뷰』는 후원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할 수 있도록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돈이 제일

어느날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처칠 경이  
방송 연설을 하기 위해 BBC 방송국에 가야 했다.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BBC로 가자 했더니 안 간다 했다.  
그 유명한 처칠 경의 연설을 라디오로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 했다.  
기분이 잔뜩 좋아진 처칠은 기사에게 돈 한 파운드를 주었다.  
큰 팁을 미리 받고 기분이 좋아진 택시기사 왈,  
“손님, 얼른 타세요. 처칠이고 뭐고 역시 돈이 제일이죠!”



## [학회] 제31회 기독교학문연구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논문 접수

기독교학문연구회가 제31회 기독교학문학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학문을 통한 선교적 만남"으로 여러 학회와 공동주최로 총신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기독교학문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4.11.8(토)
- 장소 총신대학교 서울캠퍼스(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 논문발표 신청마감 2014. 9.30(화)
- 문의 gihakyun@daum.net / 02-3272-4967 (학회)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 [기미아 모집]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11기 모집공고

미디어 영역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펼쳐나갈 미디어전문인 양성 프로그램 기독교미디어 아카데미 11기를 모집합니다. 이번 11기는 10월 18일(토)부터 약 14주간 서울국제크리스천 아카데미(SICA,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에서 진행됩니다.

- 접수기간마감 2014.10.4(토)
- 장소방법 온라인접수 (www.cmca.or.kr)
- 전형방법 서류전형→면접
- 교육비 등록금 35만원(총 14주 과정, 외부기관 후원으로 수업료 무료)
- 문의처 02-745-7237 (홍정석 간사)

## [매월/모집] 기독교 대학원생 모임

기독교 대학원생 모임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동역회의 교수님들을 멘토삼아 함께 담소를 나누고 연구를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 일시 2014.9.26(금) 오후 5시
- 장소 삼일교회 C관 2층(4호선 속대입구역 10번 출구에서 골다리 지나 오른쪽 맞은편)
- 문의 info@worldview.or.kr / 02-754-8004

## [일반인을 위한 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 생명윤리상담사과정 가을학기 강의]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한 이 시대에 생명사랑의 단기연수과정의 강좌를 소개드리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2014.9.1~11.3(9주간)  
매주 월 오후 6시~8시 50분
-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병원교회 3층(지하철 혜화역 2번 출구에서 길 건너 병원 안)
- 주관 성산생명윤리연구소(www.bioethics.or.kr/ 02-744-3402)
- 신청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를 다운받아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scbe@bioethics.or.kr)
- 수강료 30만원(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5-102975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입금 후 전화요망(02-744-3402)

## 임원동정

**[부고]** 지난 8월 9일, 기독교학문연구회 부회장이신 유재봉 교수님(성균관대 교육학과)의 모친 이갑식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부고]** 늦은 부고를 알려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초대 감사이신 박인용 박사께서는 지난 8월2일 오후 건국대학 병원에서 숙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박인용 박사께서는 한국 "원자력발전"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원자력연구소를 정년퇴임 후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위치한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1996년부터 2012년 병환으로 학교를 떠날 때까지 컴퓨터 전자통신 공학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후학들을 가르치셨고, 특히 유물론적 세계관에 익숙한 중국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과학사"를 손수 저작하여 강의를 해 오셨습니다. 또한 2개월 먼저 떠나신 이상순 사모님(심리 자문실 실장)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보살피고 돕는 일들을 헌신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간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 심재승 교수의 일정

### 1. 기독교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삶) 여름 캠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2박3일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미국의 Dordt College에 재학중인 한국인 학생들을 심재승 교수가 훈련하여 한국에서 실시한다. 2015년도 여름에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My Story in God's Story' 캠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구속역사 안에서 나는 세상 안에서 누구인가, 죄는 세상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현재 삶에서 구속은 어떻게 살아져야 하는가? 공부는 무엇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 등의 주제를 다룬다.

### 2. 기독교 학교 교사/학생 연수 (January Korean Program)

한국의 기독교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미국 아이오와주 소재 Dordt College와 인근의 기독교 학교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두 주간동안 연수한다. Dordt College와 인근의 학교들은 미국 개척교단인 CRC에 관계된 학교들로서 개혁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교사는 미국의 교사들과 같이, 학생들은 그곳의 학생들과 같이 행동한다. 아간에는 Dordt College의 교수들과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강의하고 토론한다.

### 3. 기독교 학교 교사 연수, 한국에서

심재승 교수가 여름, 주로 7월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에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대로 기독교 학교의 교육의 본질과 내용,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31회 기독교학문학회

# 학문을 통한 선교적 만남

발표 논문을 모집합니다!

총신대학교 서울캠퍼스(서울시 동작구)  
2014.11.8 (토) 오전 10시~오후 6시

논문발표신청접수마감 : 9.30(화)

논문완성본 제출 마감 : 10.20(월)

- \*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십시오.
- \* 문의 02-3272-4967, gihakyun@daum.net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2014년 동역회 임원 멘토와 함께하는  
**기독교대학원생 모임**

**매월 넷째주 금요일 오후 5시**  
**삼일교회 C관 2층**  
(4호선 숙대입구역 10번출구, 지도 참고)

2014년부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차세대 기독교학자를 위한 자리를 매월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라나는 청년, 대학원생, 그리고 제자 등 소개해주시고 참여를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일에 자기소개 및 관심사 소개도 있고, 특별한 멘토분과 동역회 임원분들과의 잡담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저녁식사도 있으니 듣고자 하는 마음만 챙겨 오십시오. 각 다양한 영역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을 만나뵙길 소망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사항을 메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info@worldview.or.kr](mailto:info@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 이름(소속/ 학과/ 과정), 핸드폰, 이메일)